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원회 정수 합의 위원장 논의는 아직

21대 국회, 정수 개정 합의안 의결
복지위 24석, 산업위 30석 등 결정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개원할 것”
통합당 “배분없는 배정표제출 안해”

여야가 21대 국회 위원 구성에 앞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을 합의한 것과 별개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날(9일)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석 증가한 24석이 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석이 증가해 30석이 된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21석)·과학기술정보통신(20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16석)는 각각 1석씩 줄인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 숫자를 조정하지 않았다. 여야가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한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둘러싼 여야 다툼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 국회 개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제시한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통합당에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요청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에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며 "늦어졌던 원 구성에 다시 박차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없이 상임위원 배정표 제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받은 뒤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처리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21대 국회의원 80.6% 병역 이행

병역면제율 일반 국민보다 4.7%p ↓

병무청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아들·손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이 병역대사항 공개대상이다.

공개대상 중 195명(80.6%)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는 47명으로 19.4%를

차지해, 10명 중 2명이 면제를 받은 셈이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 포인트 낮다.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는 2.9% 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만19세 때 받게 되는 병역판정검사 면제율이 아닌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했다. 21대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군사분계선 이북출신자에게 적용되는 분계선 병역면제가 1명(2.1%) 순이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대상은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文 대통령 “일상 민주주의 위해 더욱 노력”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
“국민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
옛 남영동 대공본실 찾아 헌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가 광장에서 더 푸르러지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6·10민주항쟁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정착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데 따른 메시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6·10민주항쟁은 3·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강조한 ‘일상의 민주주의’는 크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등으로 나뉜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해야 할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되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할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하고, 소외된 곳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내 가계도 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이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해있는 현실, 현재를 위한 선택과 미래를 위한 선택도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강

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6·10민주항쟁 당시의 기억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의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앞장섰고, 회사원들은 손수건을 흔들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다”며 “어머니들은 전투경찰의 가슴에 꽃을 달아줬다. 온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를 광장에 심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진 옛 남영동 대공본실 509호실을 찾아 함께 헌화했다. 이곳을 찾은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초다. 문 대통령의 헌화에는 고 박종철 열사의 유족(형)인 박종부 님, 민감총 경찰청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등이 동행했다.

/최영훈 기자



故 이희호여사 1주기 추도식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우리 딸기, 전세계 사로 잡도록 정책역량 집중”

딸기 수출혁신 전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수출 농가·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감소와 항공운임 상승과 지난해 태풍 피해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전년대비 20% 감소 추정) 등 어려운 여건에서 딸기 수출을 위해 노력해온 농가와 수출업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우리나라 딸기 수출이 지난해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열한 노력이 거둔 성과”라며 수출 딸기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기가 아시아를 넘

어 전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농가·업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생산부터 포장·운송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딸기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5%의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수출량이 국내 생산량의 2.8%에 불과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 이에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수출 스타품목으로 중점 육성 중이다. 딸기 수출 추이를 보면, 2015년 19개국에 3300만불에서 2017년 24개국 4400만불, 2019년 26개국 5400만불로 증가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